

전태동 총영사님께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터키에서의 이웃종교 성지순례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순례를 통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시작과 마무리가 총영사님의 배려로 비롯되었습니다. 신경써준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순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무에 바쁜 와중에도 입출국과 오찬 등을 직접 챙겨주신 수고로움에 함께 하신 이웃종교 공동대표님들께서도 깊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모든 일정 역시 더욱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총영사님과 부인, 영사와 조사관 등 영사관 가족 모두의 깊은 배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교민들의 안전과 보호는 물론 경제와 문화 교류 등 관련 업무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지도자 모두가 두 나라의 우호와 총영사관의 안녕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나 해외 어디에서나 이번에 맺은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이 모두 평안하여 즐거움이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